

‘전남권 의대’ 놓고 김영록·강기정·신정훈 대립각

◆ “순천 의대 발언 부적절” 취소 촉구
◆ “의대 설립 후보지 결정해야” 고수
◆ “의료위원회 설립 과학적 검토해야”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와 강기정 광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기정 광주시장의 국립의대 순천 유치 공약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강 시장이 국립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을 강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정치권이 (의대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학 통합을 1% 남겨두고 양 대학이 원활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도민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므로 강 시장은 (발언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통합국립의대가 설립되고 양 지역(순천·목포)에 부속병원이 설립되면 두 지역에서 수업이 가능하다”며 “의과대학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마치 의대가 어느 한쪽에 설립되고 또 부속 병원도 한쪽에 설립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정치권이 그런 발언을 하면 시민이 헛갈린다”며 “통합의대를 설립하고 서

부와 동부권에 국립의대 부속병원을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순천 의대 설립 공약은) 지난해 12월 양 대학과 전남도 간 합의 내용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교육부가 의대 위치를 조속히 정해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의 핵심은 50대50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100명 규모의 의대는 순천에 두고 대학본부는 목포에 두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결정해야 할 사안은 결정해야 한다”며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철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대학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지만 대학이 결정을 못 하니 (대학 통합) 신청서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균공형 문제처럼 서로 다른 주장이 계속되면 결국 조정이 안 된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결정을 해야 할 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목포나 순천이나를 택하기 전에 의료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전남 의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지금이라도 대학 본부와 의대를 나눠 합의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남권 의대 문제와 관련, 신정훈 의원도 이날 ‘대 핵심 의료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된 ‘통합특별시 의료위원회’를 설립,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의 위치 선정을 비롯한 의료 자원 배분

전반을 정치권 이해관계가 아닌 데이터 기반 과학적 검토에 맡겨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는 시·도민에게 가장 절박한 생명의 문제지만 국립의대 설립 위치를 두고 표계산에 몰두하는 사이 정착 지역을 지키는 거점 병원과 핵심 인력은 사라지고 있다”며 “십수 년 뒤에나 완공될 의대 건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16일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명 정원의 의대를 순천으로 통합하고 이에 걸맞은 부속 대학병원도 이곳에 세우겠다”고 발표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 정치인과 도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민형배, 화순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이 지난 18일 화순 한울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활용 방안과 화순 의료·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민형배 의원은 “화순은 항암 치료 역량과 바이오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며 “중입자 가속기와 같은 고도 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치료·연구·산업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폐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치유, 바이오, 관광과 결합하면 새로운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화순관광활용 구상을 밝혔다.

민 의원은 통합 이후 광주 솔림 우려에 대해 “전남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순천, 여수 등 동부권이 함께 움직이면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특별법 내에 27개 시·군·구가 각각 특화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발전 장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변은진 기자

장관호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출마”

전남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확정

전남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추대된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1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와 전남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 장관호 전 지부장은 “경쟁과 서열의 교육이 아니라 ‘인성과 실력’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교육 5주체와 시민 협치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광주와 전남을 함께 보는 통합교육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결합이 아닌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한편, 전남 민주진보교육감 공천위원회는 이날 공천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장관호 후보를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박승욱 기자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 서부권 발전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 측 제공>

“서부권, 글로벌 에너지·반도체·해양 허브 구축”

김영록 특별시장 후보, 7대 발전 공약 빅테크 유치·농협중앙회 이전 등 구상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전남 서부권을 세계가 주목하는 RE100 기반 ‘글로벌 에너지·반도체·해양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7대 발전 공약은 ▲RE100 기반 에너지·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한민국 AI·데이터 산업 수도 육성 ▲공항·항만·산단 연결 원스톱 통합 교통 관문 ▲K-푸드·농생명산업 생산·수출 허브 조성 ▲세계적인 해양치유·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 ▲국립의대 조속 개교 추진, 동·서부권 부속 대학병원 동시 건립 및 문화예술관광 허브 육성 ▲국가유산청 이전, 농협중앙회·한국공항공사 등 유치다.

김 예비후보는 “에너지 첨단 반도체 중심 권역으로 설정돼 있는 데다, 산업용지 400만평과 배후

도시 700만평 등 1천100만평 규모의 미래산업·정주 복합공간 조성이 가능한, 무궁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 바로 서부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태양과 바람이 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 전남 서부권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기관차가 될 것”이라며 “서부권을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찾아오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며, 세계인이 휴양을 즐기러 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 산업·경제·문화·관광 거점으로 반드시 키워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정 기자

Sulwhasoo

다시 짙어지지 않고*
맑게 이어지는 피부
설화수 자정앰플세럼

*사용 중 단 1주 후 색소 침착 개선 유인제 적용 시험결과, 시험기간: 2024.10.28~2024.12.31, 시험대상: 30~55세 여성 31명